

2025 LEET 언어이해 분석

【요약】 언어이해연구에서는 5가지 관계로 제시문을 분석하고, 선지에 어떤 기믹이 쓰였는지 설명한다. 기믹이란 주로 관심을 끌거나 매력을 높이기 위해 고안된 장치 또는 아이디어를 뜻하는데, 출제 측면에서 출제자의 상술, 함정 등을 가장 잘 나타내는 용어라 생각한다. 또한 기출의 모든 내용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출제 측면에서 주목할 가치가 있는 부분만을 탐색한다. 텍스트만으로 표상을 전달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필요하다면 도식을 제시하기도 할 것이다.

【주요어】 type-of, part-of, date-of, cause-of, instance-of

1. 뉴게이트 소설의 특징

출제 측면에서 본 제시문은 ‘미지근한 서술’을 택하였다. 이는 생소하거나 전문적인 용어 및 설명보다는 일상언어적 설명에 좀 더 가까운 서술을 의미한다.

1830년대 영국에서 유행한 범죄소설은 이러한 법과 문학의 상호 작용을 잘 보여 준다. 범죄자 처형기록부인 『뉴게이트 캘린더』에서… 이 시기 범죄 문학 장르는 재판 관행 및 행형 실태 개선을 촉구하는 캠페인의 산물이었다. 그것은 동시에… 형법 개혁의 원동력이 되기도 했다.

① 형법 개혁 운동은 범죄소설의 열풍의 계기이자 성과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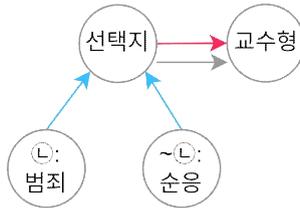
cause-of(인과관계)는 일반적으로 선후성을 함축하지만 넓은 의미에서 순환적 관계도 인과관계로 간주할 수 있다. 한편 미지근한 서술을 이용한 대목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을 이용한 일상언어적 기막이다.

법은 범죄자를 만드는 계급과 처벌하는 계급만을 위해 존재할진대, 생존의 막다른 골목에 놓인 빈민을 ㉡ 자연의 제일법칙에 입각한 선택지만 남은 상황으로 내몬 다음 그 선택지를 집었다는 이유로 교수형에 처하는 것이 과연 정의일 수 있는지 소설은 질문한다.

② ㉡은 살아남기 위해 주어진 계급적 위치와 역할에 순응해야 하는 운명을 가리킨다.

얼핏보면 그럴듯한 말로 들리지만 이것은 상술이다. 이 기막은 일상언어적 측면과 type-of라는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자연의 제일법칙에 입각한 선택지’는 컨텍스트 상 ‘범죄’를 의미한다. 그 선택지는 교수형의 충분조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생존의 막다

른 골목에 놓인 빈민은 ㉠하거나 ~㉠할진대, ㉠은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므로 이는 주어진 계급적 위치와 역할에 반하는 행동이다.



〈그림 1〉 양도추론과 충분조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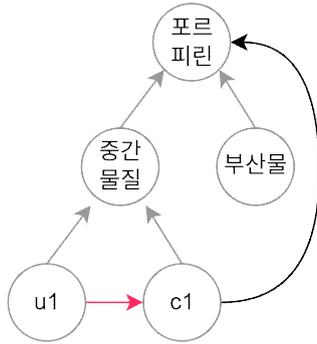
2. 포르피린증

6번 문항은 2024 언어이해 광역학 지문¹⁾처럼 cause-of가 강조되었다. 하지만 광역학 지문과 달리 단순한 선형 인과에서 출제가 종결되었다. 오히려 주목할 부분은 type-of이다.

헴은 여러 단계의 복잡한 생합성 경로에 의해 만들어진다. 이 헴 합성 경로에 관여하는 효소의 이상으로 포르피린으로 통칭되는 헴 합성 중간물질 및 부산물들이... (중략) 그중 하나인 ‘선천성 조혈기성 포르피린증’은, 헴 합성 경로 효소 중 하나의 결함으로... 생성된 코프로포르피리노젠 I에 의해 발생한다.

① 코프로포르피리노젠 I 은 포르피린의 한 종류이다.

¹⁾ 23번과 24번 문항 모두 비선형적이고 연쇄적인 인과를 포함한 복잡성이 반영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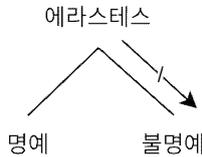
<그림 2> 이행성. c1 = 코프로포르피리노젠 |

3. 소년애에 대한 관점

5가지 관계 중 가장 본질적인 것은 type-of일 것이다. type-of는 집합 간 관계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언어 적성시험 중 가장 고급진 세트르 불리는 LEET에서도 이 본질적 관계가 중요시되고 있다.

크세노폰은 남성과 소년이 친구가 될 수 있지만 “남성이 명백히 소년의 육체에 매혹되었다면, 이는 불명예스러운 것”이라고 비판했다.

② 크세노폰은 에라스테스를 소년의 육체를 차지하려는 불명예스러운자로 한정했다.



<그림 3> 이행성 추론의 방향

②이 적절하지 않은 이유를 판단하는 데 별다른 노력이 필요하지 않은 이유는 type-of를 포장하는 함정 장치가 없기 때문이다.)

4. 사법심사

1문단은 입장 분류가, 2문단에는 새로운 입장인 로버트 달의 논증이 나타나고 있다. type-of와 data-of가 융합된 도식을 이용하면 선지 판단에 인지적 장애물을 집어 넣기에 충분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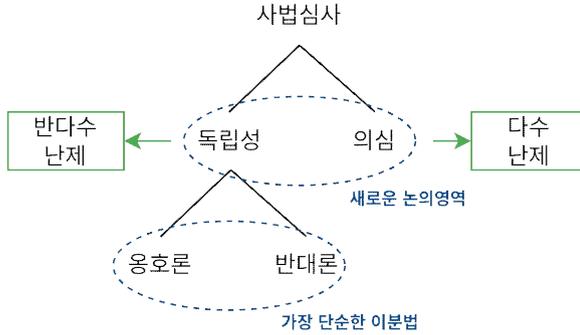
사법심사는 다수주의의 예외로 간주되기도 한다. 민주적 절차로 선출된 의회나 행정부의 결정이 합헌 여부를 기준으로 무효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사법심사는 민주주의의 내재적 한계를 극복하려는 교육지책이라는 옹호론도 있다. 위의 논의들은 사법심사의 정치적 독립성을 전제하지만, 현실 정치에서의 완전한 독립은 늘 의심받는다... 이에 영향을 받는 사법심사는 원래 취지와 달리 다수주의적 난제에 직면한다. 사법심사가 반다수주의적 난제를 떠안았다는 기존의 견해를 뒤집은 달의 이런 주장은...

④ 의회 결정 무효화가 **부당하다고** 보는 사람은, 사법심사로 인해 민주주의가 다수주의적 난제에 직면했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서술에 있어서 부정을 나타내는 표현이 여러 개 등장할수록 수험생은 선지 필터링에 부담을 겪는다. 게다가 1문단에서 2문단 초입부까지 출제자가 입장 간 분류에 힘을 주었는데, 제 3의 입장인 로버트 달의 주장을 예리하게 보지 않으면 헛갈리기 쉽다. 즉, 가장 단순한 형태의 찬/반 구조에 새로운 논의영역을 추가³⁾하면 복잡성이 더해진다.

2) <그림 4>처럼 계층 하나만 추가되어도 출제 측면에서 얼마나 변별력을 높일 수 있는지 알 수 있다.

3) 가장 단순한 형태란 사법심사에 대한 찬성과 반대 입장만을 소개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둘을 기존의 논의로 묶고 새로운 관점인 로버트 달의 입장을 추가했다는 의미이다.



〈그림 4〉 사법심사 {찬/반⁴⁾} + {독립/의심}

5. 권리에 기초한 공리주의 비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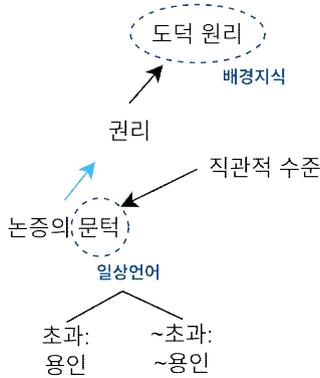
이 세트도 관계가 중요하나, 빈번히 출제되었던 공리주의의 주제가기에 서술이 불친절하고 내용이 과도하게 생략되었다. 그러므로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문항을 틀리더라도 독해력에 의구심을 가질 이유는 없다.

그에 따르면 내가 어떤 것을 할 권리를 가진다는 사실은 타인의 간섭에 반대하는 근거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권리 침해를 옹호하는 논변이 넘어야 하는 ‘논증의 문턱’을 제공한다...(중략) 직관적 수준의 사유란 우리가 이미 주어진 것으로 간주하고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 마음의 습관이나 원리 등을 개별적 사안에 적용할 때의 사유로서, 헤어에 의하면 권리는 일반적 도덕 원리의 일종이다. 직관적 사유가 다를 수 없는 특수한 상황에서는 비판적 사유가 적용될 것이다. 그 결과, 권리 침해가 최적의 행위라고 결론이 난다면,...

⑤ 헤어는 권리가 가지는 논증의 문턱이 직관적 수준에서는 규범

4) {}는 논의영역을 나타낸다.

적 힘을 발휘하기에 너무 높다고 비판받을 것이다.



〈그림 5〉 일상언어와 배경지식이 중요성

논증의 문턱을 “공리주의가 넘어야 하는” 으로 서술하고 있는데 이를 컨텍스트 상 두 경우로 나누어 13번 문항의 ①처럼 추론하고 있다. 또한 직관적 수준의 사유란 권리를 도덕 원리의 일종으로 바라보는 방식을 말하는데 도덕 원리라는 워딩은 리트 수준에서는 배경지식으로 간주된다. 제시문 속에서도 “그것을 위반했을 때 죄의식이나 회환 같은 도덕적 감정을 수반” 이라고 명시한다. 따라서 헤어는 직관적 수준에서는 문턱이 작동하여 권리가 규범적 힘을 발휘하기에 충분하다고 말할 것이다. 헤어 본인의 입장이므로 ⑤처럼 비판의 대상을 오인하면 적절하지 않은 것이 된다.